

배우 나문희 “연기 힘들죠 근데 현장은 여전히 언제나 신나요”

영화 ‘영웅’서 조마리아 여사 역 맡아
뮤지컬영화 도전 “우린 시키면 한다”
60년 넘게 연기...“좋아해서 계속 해”

“좋아하니깐.” 배우 나문희(82)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 연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1961년 데뷔해서 60년 넘게 일했다. 그리고 여든을 넘어서도 왕성히 활동 중이다. 나문희만의 비결, 나문희만의 비밀을 들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의 말은 그저 심플했다. “좋아하니깐.” 이렇게 말한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가 말을 이었다. “연기 자체가 즐겁진 않아요. 중요한 장면을 찍기 전날엔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면 잠 신이 나. 난 아직도 젊음이 그래요.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화 ‘영웅’에 출연한 나문희를 4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잘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배우는 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언론과 접점이 가지 않았던 노배우는 “윤재균 감독이 죽어야 해야 된대서 나왔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여러분을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義士)의 삶을 그린 이 영화에서 나문희는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를 연기했다. 국민염마로 불릴 정도로 엄마 역할은 물론 정도로 했지만, 조마리아는 나문희에게 분명 도전이었다. 아들에게 “나라를 위해 죽으라”는 어머니도 처음이었거니와 뮤지컬영화이기 때문에 연기와 노래를 병행해야 했다. 게다가 나문희는 이 영화 후반부에서 가장 진한 감정이 담긴 시퀀스를 책임져야 했다. 이번에도 나문희의 답변은 간단했다. “우리 연기자들은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연기는 연기대로 준비하면서 노래 연습도 했다. 피아노를 전공한 큰딸이 엄마가 불러야 할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망’을 레슨해줬다. 그렇게 완성한 나문희의 노래는 ‘영웅’의 명장면으로 남았다. 윤 감독은 이 장면의 완성도를 위해 수차례 재촬영을 하기도 했다. “윤 감독이 그렇게 욕심을 내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윤 감독 너무 싫었어요.(웃음) 난 항상

맨 처음에 한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 신이 어렵기도 한데 내가 나이도 있잖아요. 노래도 라이브로 해야 하고. 그래도 완성된 거 보니까 참 보람이 있어요.” 나문희는 노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사와 감정만 생각하며 읊조렸다고 했다. 나문희가 일을 좋아하는 건 정말이다. 그는 최근 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만 ‘진격의 함대들’ ‘뜨거운 씬어즈’ 등 예능 프로그램 2편에 고정 출연했다. 예능만 하는 게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10~20대가 주를 이루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계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 중이다. “회사에서 한 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우리 매니저도 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이걸 하면 움직이게 되니까 좋아요. 젊은 사람들 감각도 익히고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에게 도전하는 게 두렵지는 않으나 물으니 또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냥 나한테 닥친 건 다 해보려고요.” 그는 “두려움은 항상 있다”면서도 “그런데 겁없이 하는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 “근데 난, 뻔한 건 좀 하기 싫어요.” 80대에도 현장이 설렌다는 이 배우에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물었다. 그는 “유연성”이라고 했



다.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 잘 맞춰야죠. 우리 딸도 나한테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날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웃음)” 출연한 영화·드라마를 일일이 헤아리려면 한참이 걸릴 정도로 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크게 성공한 작품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나문희의 연기가 주목받은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다.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역할을 맡았지만, 그

에게 가장 소중한 캐릭터 하나를 골라달라고 했다. 나문희는 별 고민 없이 “호박고구마가 제일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호박고구마는 2006년 방송된 MBC TV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나문희’ 역을 말한다. 극중 에피소드 중 호박고구마 관련된 게 있었는데, 그게 밈(meme·온라인상 유행어)이 되며 지금껏 회자되고 있다. “세상이 힘들니까, 난 희극적인 게 좋아요.”

뉴진스·르세라핌·아이브·엔믹스·이영지, 英 NME 뽑은 올해 유망주

호주가 주무대인 한국계 힙합 그룹 ‘1300’도 선정



‘뉴진스(NewJeans)’ ‘르세라핌(LESSERAFIM)’ ‘아이브(IVE)’ ‘엔믹스(NMIXX)’ 등 4세대 K팝 걸그룹과 케이팝 음악채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11에서 우승한 래퍼 이영지, 얼터너티브 K팝 그룹 ‘바밍 타이거(Balming Tiger)’가 영국의 권위 있는 음악 잡지 NME가 뽑은 올해 유망주로 선정됐다. 이들은 NME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더 NME 100 : 에센셜 이머징 아티스트 포 2023’(The NME 100: essential emerging artists for 2023)에 선정됐다. NME는 뉴진스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신인 걸그룹으로 Y2K에서 영감을 얻은 팝을 선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극한 ‘어텐션’부터 교묘하면서 진지한 ‘하이프 보이’까지 지난해 가장 히트한 팝 뱀어(banger·대단하거나 정말 좋은 노래를 가리키는 슬랭어)들을 선보였다고 들었다. 젊진 소녀 같은 편안한 매력과

2세대의 독특한 향수로, 이미 다른 K팝 스타와 팬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르세라핌에 대해선 스타일리시하고 품격이 있다며 ‘아이 피어리스’(I’m Fearless·나는 두려움이 없다)를 애너그램한 이름으로 세계적인 매력을 발산한다고 봤다. 발레리나 출신 카즈하, 매력적인 은채, 아이즈원 출신 김재원과 사쿠라 그리고 오페라 트레이닝을 받은 허윤진은 신인임에도 이미 주목할 만한 곡들을 공동 작곡하고 있어 르세라핌의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브에 대해서는 세련된 K팝 사운드로 과거의 한복판을 맞췄다면서, 3연속 히트곡 차세대 K팝 아이콘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춤지향적 음악을 선보인다는 아이즈원 출신인 ‘잇 걸’ 장원영과 리더 안유진 외에 다른 멤버들도 그룹에 역동성을 더한다고 했다. 레이와 가을은 단단한 랩을, 리즈와 이서는 강력한 보컬을 맡고 있다고 했다. 엔믹스에 대해서는 K팝에서 색다른 시도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는 매력적인 걸그룹이라면서 대조적인 장르를 조합하는 ‘믹스-팝(Mixx-pop)’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렬한 데뷔 싱글 ‘O.O.’는 베일리 펑크(Baile Funk)와 틴에이지 팝 락(Teenage Pop Rock)

장르를 동시에 포섭해 급진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쿨(Cool)’과 같은 곡에선 멤버들의 보컬이 빛을 발한다고 했다. 이처럼 엔믹스는 기본기와 스타일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영지에 대해선 남성 중심의 한국 랩계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했다. 이영지가 작낸 자신의 웹 토크쇼(‘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서 한국의 가장 큰 스타들과 살가운 시간을 보냈지만, ‘쇼미더머니’의 가장 최근 시즌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시작으로 올해는 음악에 집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랑 쾌활함에도 불구하고 이영지의 서정성은 놀랄 정도로 민감하며, 이 부분은 그녀가 나이를 뛰어넘는 현명함을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봤다. 바빙타이거에 대해서는 음악 신에 진정한 용기를 불어넣는 대안적인 K팝 집단이라면서 서울의 다문화 중심지인 이태원을 기반 삼아 경계가 없는 세계를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형성된 친구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가수, 래퍼,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감독, DJ, 그리고 다른 크리에이티브들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이런 점이 지극히 R&B 그룹 ‘저스트 펀!(Just Fun!)’, 기형적인 ‘루프(Loop)’, 슬링키 랩 ‘섹시 누킴(Sexy Nukim)’ 등 다채롭고 혼란스러운 세계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K팝보다 덜 세련됐지만, 대단히 재미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NME는 호주가 주무대인 한국계 힙합 그룹 ‘일삼공공(1300)’도 이번 명단에 선정했다. K팝의 스웨거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힙합을 융합한 파워하우스 집단이라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섞는 이들은 매우 대담하고 화려하다고 했다.

송혜교만큼 빛나는 조연...‘더 글로리’ 중심축



넷플릭스 ‘더 글로리’는 배우 송혜교와 작가 김은숙 변신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주로 멜로·로맨스물에서 활약, 첫 장르 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관심이였다. 지난해 30일 파트1 공개 후 6일만에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4위까지 올랐는데, 주연인 송혜교 변신 못지 않게 조연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기존 이미지와 반대인 배우를 캐스팅해 반전을 주거나, 연극·뮤지컬 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이들을 발탁해 무게감을 더했다.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복수극이 썩 새롭지는 않았지만, 조연들의 탄탄하고 개성 강한 연기력이 작품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의외의 캐스팅 반전

‘더 글로리’ 전제는 충분히 예상이 갔지만, 캐스팅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신예는 연기를 보고 놀란 이들이 적지 않다. 송혜교의 첫 장르물 도전, 임지연의 첫 악역 연기 만큼이나 돋보였다. ‘박연진’(임지연) 고등학생 시절로 분해 ‘문둥은’(송혜교·이영지)에게 학폭을 가했다. 기존의 청순 가련한 이미지를 벗고, 동은의 몸을 고대기로 지지는 등 악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동은 불을 피우고 ‘보고 싶어 죽는 줄’이라며 임지연을 썩 울릴 때도 심복했다. 분량이 많지 않았지만, 초반부 서사를 이끌며 동은이 복수를 행하는데 설득력을 실어줬다. 친구들과 일부러 흰 티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 인상적이었다. 개념없는 행동을 하거나, 학폭을 저지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미국 유학과 출신 차주영은 백치미 넘치고 속물인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했다. 연진과 학폭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인 ‘최혜정’의 성인 시절을 연기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세탁 소집 딸인 혜정은 승무원이 된 후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신분 상승을 꿈꿨다. ‘남친이 사했다’며 ‘이사라’(김희애)가 세탁소에 맡긴 사

넬 원피스를 입고 등장, 굴욕을 당하는 장면은 혜정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줬다. 찌소리도 못 하다가, 연진과 사라가 떠나자 ‘친구들이 사했다’며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 모습이 웃음 짓게 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학폭 가해자인 사실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 동은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 파트2에서 ‘순명오’(김건우) 실종 관련 등은 조력자로서 어떤 활약을 할지도 관심 포인트다. 이무생의 사이코패스 연기는 짧지만 강렬했다. 연쇄살인범 ‘강영천’(이무생)으로 특별 출연, 딱 한 장면이었지만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영천은 ‘주여정’(이도현) 아버지를 살해, 청송교도소에 수감 된 인물이다. 감형 받기 위해 여정에게 반성하는 척 계속 편지를 보냈다. 여정 어머니 ‘박상임’(김정영)이 교도소로 찾아오자, 죄를 뒤우려 척 하다가 이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돌변했다. 눈알을 굴리며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고, 여정 아버지를 조롱하는 장면은 감탄을 자아냈다. ‘부부의 세계’(2020)와 ‘서른, 아홉’(2022)에서 보여준 멜로 연기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연극·뮤지컬 무대 출신 활약 김희애와 정성일은 더 글로리의 가장 큰 발견이다. 그 동안 연극·뮤지컬 무대에서 갈고 닦은 내공을 보여줬다. 김희애는 임지연, 차주영과 함께 악녀 연기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목사 딸이자 화가인 사라는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지만, 마약을 복용하고 알코올에 찌들어 사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혜정 자신의 사별 원피스를 입고 왔을 때 담배를 짓가락에 끼워서 피며 비웃고, 페브리스를 뿌리며 차진 비속어를 내뱉는 신을 맛깔나게 살렸다. 드라마·영화 등이 인기를 끌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짤’(인터넷상에서 사진이나 그림 따위를 이르는 말)이 쏟아지는데, 이 장면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탈북자 연기를 선보였는데, 이전 필모그래피도 찾아 보고 싶게끔 만들었다. 정성일에게 폭 빠진 시청자들도 많다. 송혜교와 14세 연하 이도현의 로맨스보다, 정성일과의 멜로 연기에 더 공감했다. ‘하도영’(정성일)은 연진 남편이자 국내 최고 건설사 대표다. 재력과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갖췄지만, 연진이 학폭 가해자인 사실을 알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취미인 바둑을 통해 동은과 가까워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알고도 흔들렸고, 김 작가가 “정성일은 목소리가 좋아서 어떻게 써도 명대사처럼 들렸다”고 극찬했는데, 특유의 중저음 톤과 섬세한 감정 연기가 두드러졌다. 동은과 연진 사이 긴장감을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더 글로리’는 총 16부작이며, 3월 파트2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찬욱 ‘헤어질 결심’, 英 아카데미 4개 부문 예비후보

뉴욕타임스 평론가 오스카 감독상 후보 추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영국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에서 4개 부문 예비후보가 됐다. 6일(이하 현지시간) BAFTA가 예비 후보 명단에 따르면 ‘헤어질 결심’은 감독상을 비롯 외국어영화상, 오리지널 각본상, 편집상 예비후보에 지명됐다. 앞서 박 감독은 지난 2018년 해당 영화상에서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1947년 출범한 BAFTA는 매년 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미국 골든글로브상, 아카데미상(오스카상) 등과 함께 영미권 최고 권위 영

화상으로 통한다. 올해 24개 카테고리 중에서 영화 ‘서부 전선 이상 없다’와 영화 ‘이니세린의 뱀사’가 각각 15개와 14개 부문의 예비 후보 명단에 언급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식 후보자는 오는 19일에 발표된다. 시상식은 오는 2월19일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로열페스티벌홀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헤어질 결심’은 곧 다가오는 골든글로브상과 오스카상에서도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일 열리는 제80회 골든글로브에서 비영어권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다. 박 감독은



시상식 참석을 위해 현지에 머물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수석 영화평론가 마블라 다그스는 3월26일 열리는 제95회 오스카상에 박 감독을 감독상 후보로 추천했다.